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

모두 말씀

2026.5.7.(목) 14:00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I 인사말씀 및 논의과제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주역인 금융투자업권이

그 역할을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메꾸며,

리스크는 미연에 방지하면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①종투사의 경우

과도한 위탁매매 수수료 의존*, 부동산금융 쏠림 등의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 ('24년 종투사 수익) 위탁매매 45% > 자기매매 33% > IB 17% > WM 6%

②중기특화 증권사는

경쟁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③모험자본 수요처를 발굴하기 어렵다거나,

④IPO에 편중된 벤처 회수시장을 개선하여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㉔ 아울러, 시장이 좋은 때일수록
레버리지 투자 등의 위험성을
증권업계가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망라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I 모험자본 역량 강화를 위한 당부 사항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 5.9조원 → '21. 9.1조원 → '22. 2.9조원 → '23. 5.8조원 → '24. 6.9조원 → '25. 9.6조원

양적 성장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과 한 번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기록적 수익이 '안목과 역량'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초저금리,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같은
외부환경(wind fall)에 기인한 것인지 되돌아볼 시점입니다.

증권업계의 진정한 미래 도약을 기대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간파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증권업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자본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손쉬운 수익창출에 활용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험 뒤에 가려진 성장잠재력을 선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증권업의 존재 이유이며 생산적 금융의 첫 걸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과제를
업계 '스스로' 찾아내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벤처생태계의 큰 병목현상이라 지적되는
'회수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앞장서거나,

실리콘 벨리에 대한 투자 사례처럼,
실패 가능성이 높고 초장기 초거대 자금이 소요되나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기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의 복제는
Zero-sum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혁신을 통한 차별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증권업계의 전략과 건의를 들어보면
타 업권과 달리 회사별 개성이 잘 보이지 않고

유행하는 수익원을 좇는
'미투(Me-too)'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포착하는 통찰적 리서치와
정교한 스크리닝 등을 통한
차별화된 투자 역량을 높이고,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는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는 '사후 수습'이 아닌
'상시적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그간 금융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유동성 파티, 시장 과열이 끝난 후
부실자산이 터져 나오는 광경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또한, 시장 호황시 리스크에 대한 경고 목소리는
성과급 잔치에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위기시마다 증권업계가 유동성 애로를
토로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증권업계는
지급결제, 파생결합증권, 발행어음 및 IMA 등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도,
감내 가능한 범위의 투자인지
회사별로 각고의 경각심을 갖고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증권업계는 '고객은 왕'이라는 오랜 가치를
되새기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액결제거래(CFD) 사태 등으로
증권업의 근간인 신뢰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낡은 접근방식으로는
증권업의 선진화는 요원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객 중심의 판매구조와 내부통제장치 구축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우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III 마무리 말씀

앞으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가
증권업의 역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